東亞日報
月曜 夕刊
本紙朝夕合八面
編輯兼發行人 宋鎭禹
印刷人 趙宜淳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代表番號 光化門 一九〇〇

時評

景氣라면 누구의 것인가

大藏省調査에 依하건대 十一月物價 平均指數는 一四一、〇으로 十月의 一二九、六에 比하야 八分八厘의 激騰이며 金再禁止 直前인 昨年 十一月의 一〇二、七에 比하면 實로 三割七分의 暴騰 이라 한다。말하자면 爲替低、通貨膨脹이 카르텔活動强化의 三重奏로 物價는 暴騰하다。그리하야 벌서부터 景氣來를 高唱하는 部類도 不少 하다는것이 事實이라 한다。

物價高! 果然 景氣의 兆徵인가? 朝鮮米價도 남의 장단에 춤추기로 十一月의 指數는 十月의 그것에 比하야 九分三厘의 激騰 이라하나 過去三四年來 米價暴落에 依한 負債는 姑捨 하고라도 우리의 必需品인 紡織物價의 指數가 一割六分의 暴騰 이니 오히려 六分七厘의 高物價 受難者의 處地에 잇게되엿다。이에 寒等에 떨인듯한 勞動市場의 그네들과 一般 俸給者와 아울러 景氣來의 先驅者이인 物價高는 누구의 景氣를 意味하는가 再吟味나 하고싶다。

朝鮮米買上規定是非

在京 米生産者 代表와 米穀商 代表가 發表된 米買上規定이 不便不利하야 五日 午前에 農林省 出張所에 買上 場所의 二個所 增加、標準價格 以下 米買上、受渡期限 延長、米穀證券 金利引上、買上米 證據金 金利等의 五項目을 들어 陳情을 하엿다 한다。

말할 것 없이 朝鮮米 一時는 國家政策上 不得已한 産米增殖이라하야 責任 맛든 朝鮮米가 今日엔 無謀한 統制라는 俎上에 올으지 않을수 없게되어 極히 賤동이가 되엿다 貴하나 賤하나 朝鮮米는 朝鮮人의 唯一한 收入資源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收入資源의 獨子格이다 이러한 切迫한 處地임에도 不拘하고 買上場所를 經費의 關係라는 口實로 京城 一個所에 局限하는等 모든 不利 不便한 規定을 發表하야 그 影響이 必然的으로 生産者인 農民에게 轉嫁 되리라 한다 바라건대 當局은 모름즉이 米買上을 朝鮮米 移出 調節에만 全力을 盡하지 말고 朝鮮米價에도 더욱 關心하야 農民의 窮狀 一步를 更進하야 朝鮮人의 餘裕 없는 經濟에 萬分之一이라도 도움이 되게하라。

日本軍宮本先遣隊 大興安嶺頂上占據

決死隊組織하야 防禦陣地突入

呼倫貝爾로前進中

【齊齊哈爾 四日 發聯合】 雪嶺險한 大興安嶺을 晝夜兼行으로 破壞線路를 修理하면서 列車로追擊中인 宮本先遣部隊는 三日午後二時大興安嶺頂上의 大隧道附近을 占據한바 同部隊는 더욱 追擊前進中이다

【齊齊哈爾五日發聯合】 興安嶺大隧道附近의 急勾配를利用하야 日本軍에 頑强抵抗하는 蘇軍에對하야 宮本部隊는 決死隊를組織하야 敵防禦地帶內에 突入하자 附近에潛伏中이든 蘇軍은 日本決死隊에 猛擊을加하고 決死隊도此에應戰한바 日本側은 一名의戰死者를 出하야 興安嶺山中戰鬪의 最初犧牲者이다

【齊齊哈爾四日發聯合】 〇〇司令部發表=服部部隊는 一路大興安嶺에向하야 進擊中인 宮本部隊는 四日午前十一時 大興安隧道東入口에 到着하야 飛行機偵察에 依하면 積雪이 多하야 列車通過의 痕跡이 업고 隧道內는 破壞하고 蘇軍은 完全히 退路를 斷絶當하야 潰滅은 目睫에잇다

丁超軍도討伐

【齊齊哈爾五日發聯合】 日本宮本先遣部隊는 四日夕刻 大興安嶺隧道를 占據하고 此에 依하야 日本軍은 大興安嶺을 占據하야 半歲에 亘한 蘇軍의 據居는 呼倫貝爾의 咽喉를 扼한 것으로서 蘇炳文의 居城인 海拉爾를 眼下에 俯見하야 最困難視되는 大興安嶺越 第一期戰이 終하고 繼續하야 呼倫貝爾占據의 第二作戰에 移하얏다

【哈爾賓四日發電通】 富錦警備隊는 方正에 據居하는 丁超軍을 討伐코저 十日 來攻擊을 開始中이더니 途中三星溪嶺에서 丁軍은 頑强抵抗하야 交戰四時間에 此를潰走시켯는데 此戰鬪에 日本西村軍曹는 戰死하고 隊長小山中佐는 腹部에 貫通銃創을 受하야 重傷하얏다

海拉爾에迫進

【免渡河五日發聯合】 蘇炳文軍을 追擊中인 日本討伐軍의 最前線部는 興安嶺을 越한後 更히 急追하야 免渡河를 通過한바 五日朝에는 海拉爾의 目前十五里地點에 迫하얏다

北滿洲의梟雄 蘇炳文逃亡說

(이를豫期하고日本軍은準備)

蒙古로? 滿洲里로?

【齊齊哈爾四日發聯合】 妻妾을 데리고 私財를 駱駝에 積하야 海拉爾를 逃去하는 蘇炳文은 目下蒙古平原을 西方으로 向하야 遁走中인 模樣인데 日本軍은 此事가 有할것을 豫期하고 興安南部省及內蒙古一帶에 封鎖網을 張하야 蘇炳文이 來하면 何時든지 捕虜로할準備를 整頓하얏슴으로 北滿最後의 梟雄 蘇炳文도 第二馬占山이 될것은 時間問題라 한다

【奉天五日發電通】 當地某方面에 入한 情報에 依하면 海拉爾在留日本人은 民國人의 妻妾이 되어 撤退를 拒絶한者 外 全部는 滿洲里로 온바 蘇炳文은 自動車로 西南에向하얏다 傳하는데 右는 誤傳으로 滿洲里方面에 逃走한것이 確實하게되엿다 蘇는 滿洲里到着後 蘇聯側과 交涉하고 蘇聯領土內에 逃命하려는듯하다

可驚할敗兵武器

【齊齊哈爾四日發電通】 [illegible]의 行衛不明으로 四散한 그 敗殘兵은 [illegible]團長이오 先者日本軍에 歸順한 李光升의 手로 富拉爾基에 集結하야 解散시켯는데 그 兵力、所持武器는 左와 如하야 此를 見하야도 蘇軍의 優秀한 것을 窺知할수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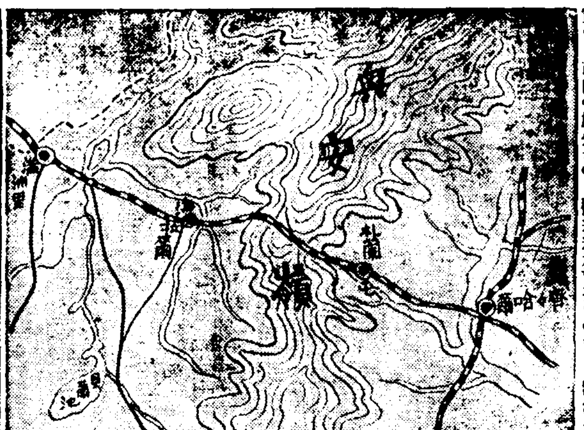
人員四千餘(騎兵一團을包含) 小銃三千二百挺 彈藥壹萬
新式輕機關銃三十六挺(彈藥一萬發餘)
新式重機關銃一挺 迫擊砲十二門(彈丸數百)
重爆擊砲三十門(彈丸數百)
野砲二門(彈丸三百餘)

蘇兵二千向西逃走

【齊齊哈爾四日發電通】 三日부터 飛行隊는 海拉爾及蘇炳文의 司令部及兵舍에對하야 爆擊을加하야 多大한效果를 收하얏다 海拉爾城內에 集結中인 蘇兵約二千은 西方으로 逃走하얏다

海拉市中火災

【免渡河五日發聯合】 偵察機의報告에依하야 海拉爾市內의 二三個所에서 黑煙이沖天함을 認한바 此는潰走한蘇軍이 市內에放火하야 撤退遁走한것이아닌가 觀測된다



◇蘇炳文과 興安嶺附近

新軍縮案提議하고 米代表活動開始

一個의新條約案을具現하야 全參加國에調印要求

【제네바四日發聯合】 米國軍縮代表 데비스氏는 米國의 新年初頭의 華盛頓條約 及 倫敦條約滿期外의 半過度的 軍縮條約案을 提하야 活動을 開始하얏다 米國의 提案은 計劃을 完了하고 그間 更히 軍縮問題의 全面에 亘한新條約案을 過去九個月間의 討議로 各國間에 一致된 諸點을 立案實施하려는것인데 今日外지의 軍縮會議에서 各國의 意見一致를 본 諸點은 新條約案에 具現한것으로서 來十五日外지에 軍縮會議參加國 全部에 依하야 調印하고 更히 明年復活祭外지에 軍縮의 具體的細目案을 立案하야 一九三七 其他等이다

一、細菌戰 及 化學戰廢止
一、戰車大砲의 制限
一、無防備都市의 空爆禁止

佛國一般의 情勢는 漸次日本에 有利하게되여간다고 한다

슈라이헐氏新內閣完成

經濟、農業兩相留任

【伯林四日發聯合】 힌덴부르크大統領의 依囑에 依하야 內閣組織의 大任을 引受한 슈라이헐將軍은 四日에 至하야 未決定하든 經濟相及 農相도 決定하야 玆에 슈라이헐新內閣은 完成하얏는데 閣員의 人物은 旣報의外에 左記와 如하다

經濟相(留任) 와룸볼트敎授
農業相(留任) 브라운男

笠井氏壽府着

【제네바三日發電通】 巴里 大使館附陸軍武官 笠井少將은 三日午後九時 巴里에서 제네바에着하야 卽時 松岡、長岡兩代表를 訪問하고 日中問題에對한 最近의 佛國의 空氣를 詳細히 報告한後 今後의 方針에 對하야 協議하얏는데 同少將의 報告에 依하면

檢事身分保障

明年으로頓落着

【東京四日發聯合】 朝鮮司法官의 身分은 明治四十二年 勅令第二百二十六號 朝鮮裁判所令에 依하야 判事는 終身官인 身分이 保障되어잇스나 檢事는全然 그런保障이업고 一般行政官과 가티 退職處遇에 는곳 退官이됨으로 判事에 對하야 甚히 不公平하다하야 檢事間에 關係法令改正의 要求가 絶叫되어잇든터인데 最近 法務局에서도 이問題를 眞摯히 檢討하야 不遠 엇더한 方法으로 公平을 保存하려한다고한다 그런데 檢事身分保障을 爲하야서 裁判所令의 改正을 行할 外에 는 裁判所構成法을 그대로 朝鮮에 施行할가 그러치안흐면 前記朝鮮裁判所令을 改正할가 이두가지에 歸着될듯한데 構成法施行에 對하야서는 大審院支部를 朝鮮에 設하는等 事務的으로 不便이잇슴으로 結局 問題는 다맛 朝鮮이 植民地全般의 共通問題이어서 朝鮮으로서는 關東州等과 步調를가티하야 進行할 意向이며 明年夏頃外지에는 具體化할 模樣이다

對議會策을 政府에서腐心

民政貴院에諒解運動

【東京四日發聯合】 第六十四議會召集期日도 切迫하야 와슴잇다 特히 豫算等에 對하야도 不滿의 聲이 高한것은 貴族院과 衆議院의 大勢에잇서서 政府는 對議會에 腐心中인 將來의 財政國策及 爲替對策에 對하야 確乎한 政府의 信念을 示치 안흐면 豫算案의 承認은 不可能하다는 意見도잇슴으로 政友會의 空氣는 漸次 反政府的으로되고 特히 膨大豫算案과 九億에 達하는 赤字公債에 對하야 政府가 相當한 對策을 示치 안는限 豫算의 通過는 至難化할 諸問題에關하야愼重히對策을 研究한後齋藤首相自身이民政黨의 總裁를訪問하고諒解를求하는一方貴族院側에도諒解를求하야來議會의無事通過에全力을注하게되엿는데政府로서는如何間無事通過할수잇는成算이다 그러나 局에서도 不拘하고 更히 具體案을 得치못하고 時局匡救의 某事件과 司法部內의

國聯側三解決案과

國民政府의方針

最後에는第一案에同意하되

第二案을極力主張

【南京五日發特電】 聯盟側의日中紛爭問題解決案은 이미 三個案으로 歸結된바 此에對하야 特別外交委員會는 愼重討究의結果 右三案에對한方針이 決定되엇다

第一案 九個國條約締約國에 露西亞를加하야 九個國條約을 基礎로 中國의領土主權의 安全及門戶開放主義에 依하야 滿洲問題의 最終解決을 作하려는案

第二案 米國스팀손卿의 屢次宣言한 『武力手段에依하야 獲得한 領土의不承認主義』에 根據하야 聯盟總會에서 滿洲國否認을 決議를하고 리튼報告書의 解決案을 採擇하려는案

第三案 十九國委員會에 米露兩國을加入케하야 새로히 特別國際委員會를 組織하고 聯盟規約第十五條第三項에依하야 和解手段을取하려는것

右三種案에對하야 國民政府는 第二案을 極力主張하기로決하고 第三案에對하야는 聯盟으로서 責任回避인同時에 日本側의延遲手段을 容認하는것이라하야 絶對反對하고 最後로聯盟側에 無力이判定될時에는 第一案에同意하야 九個國條約에依하야 滿洲問題解決을하기로決하얏다

今六日總會압두고

제네바各方面의空氣

【齊齊哈爾四日發電通】

十九國委員會에 問題附託說有力

和協手段速進勸告附로

【제네바四日發聯合】 總會議長이만스氏는 十九個國委員會를마치고 白耳義에 歸還하얏는데 總會는 九日外지마치고 內政問題로 歸國하고십다라고 話한事實이잇다 總會議事는 報告書第八章外지의 一般的協議만에局限하고 和協手段速進勸告를附하야 十九個國委員會에附託할說이有力하게되엿다

日中兩代表放送

松岡代表

【제네바四日發電】 松岡代表는 對米放送後 四日午後十一時에 다시 歐洲全土에 向하야 聯盟事務局放送室에서 如左히 放送하얏다

諸君이 아는바와가티 日本은 七十五年前外지 鎖國을 繼續하고 和親만이 엇우 貿易을 禁止하고 鎖國時代는 記錄的하야 有爲의 靑年을 海外에 派遣하야 世界의 平和時代를 어덧다 世界의 道하고 勉學시킨 結果 西洋式의 敎育과 西洋式의 軍備의 必要를 안 吾人은 建國二千六百年 以來 何處에도 三百年間 無戰爭으로 잇든 나라는 歷史上 存在치안 하다 此結果 日本은 美術、年來 住居한 섬에 居住함을 願치 文物을 發展시켯스나 化學法律 하고 決코 移住的人民이 아니다 吾人의 希望은 國家的安全保等의 智識은世界에서 輸入하지 못하엿다 其後 國內需取의 國際的으로 關係를 願치안코 他國의 安寧을 保持하고 戰爭을 避하야 自國의 安全을 維持하려함에 잇다 吾人은 스스로살 權利 即 生存權을 가질뿐아니오 他國民과取引하고 原料品을 購入하야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有한다

吾人은 中國에 對하야 右權利를 要求할것은 다른 모든國民에 對하야 要求함과 全然 가튼 同時에 日本도 모든나라에 對하야 右權利를 與하는데 拒絶치안는다 吾人은 주고 또한 바드려한다 吾人은 西洋에서 만흔것을 밧고 그리고 이것을 東洋諸國에 與하려고 생각한다

機會보아서

日中問題懇談

松平全權이사이몬英外相

伊藤全權이伊佛代表訪問

【제네바四日發聯合】 日本松平全權은 明五日午前에 英國代表 사이몬外相 米國代表데비스兩氏를 訪問하고 日本의 新海軍軍縮案을 內示함에 際하야 機會를어더서 日中問題도 懇談할模樣이다 사이몬外相은 英國側으로서 日中問題의 陸相、伊의 아로이지代表와도 懇談하기로되엿다

當局者인 關係上 대도날드首相과 會見보다는 松岡代表와의 會見이 重要視된다 또한 佐藤全權 [illegible] 伊、佛代表部를 訪問하고 中間題에 關하고 佛의 생푸르

中國代表

【제네바四日發電】 顔惠慶 氏는 四日午後六時三十分 米國에 向하야 左의 演說을 放送하얏다

滿洲 及 上海에서 日本이 取한 野蠻的 侵略行爲가 聯盟規約 不戰條約九個國條約侵犯行爲임은 疑誤할 餘地가 업다 中國全土의 中 物産豐富한 二十萬平方哩의 土地를 占領하고 十萬의 軍隊를 上海에 出兵한것이 侵略行爲를 構成하지 안는다면 日本의 行爲를 非侵略的 이라고 規約이 聯盟規約中의 何處에 잇는냐고 反問하고십다 聯盟은 敏活하게 斷乎한 處置를 取하고 各國은 聯盟과協力하야 問題를解決할時期가왓다 現在以上으로 問題解決을 遲延한은 更히 流血의 慘事를 惹起하고 滿洲의三千萬의 中國民衆을 塗炭의苦痛을與하는 것만아니라 平和와 正義를守護하는 防壁으로서 聯盟에對한 世界의依賴도 永久히업서질것이다

南京政府가 滿洲에 統治權을 行使하지못하고잇다 吾人은 滿洲에 混亂狀態가 繼續됨은 願치안는다 아니 多年 滿洲의 治安維持를 要求하고 努力하야왓다 그런데 日本의平和政策이 滿洲에잇는 軍閥據點에 依하야 日本의 軟弱이라고 誤解되든 過去三十二年間에 亘하야 歐米列强 及 日本이 北平及 天津에 軍隊를駐屯시켜온것은 決코 意義업는것이 아니다 日本에 對하야서는 滿洲의安全은 軍略上으로도 必須條件이고 滿洲의 日本權益은 日本의 國家的存在를 左右한것이다 그런데 리튼調査委員이 滿洲의 獨立을 不當타고 非難한것은 吾人이 承認할수업는바이다 極東의 平和는 中國에 달녓다 吾人은 過去十三年間 聯盟創設以來 이것을目的으로한 平和의 大理想貫徹과 增進에 聯盟과 協力하얏다 吾人은 聯盟에 對하야 此事實을 慎重考慮하는同時에 吾人에 對한 無根의非難을 拋棄하려는것을要求한다

對米放送要旨

【제네바四日發電通】 中國代表 顔惠慶의 四十五分에 亘한 對米放送의 要旨는 이어 松岡代表는 四日午後七時十五分(日本時間五日午前三時十五分) 對米放送을 行하엿다

歐米人은 가장 友誼的態度로 外 永久的眼目으로서 日本의 處事를 보아달라

吾人은 聯盟의 性急的行動을 遺憾으로녀긴다 日本은 永遠히 聯盟과의 協力을 繼續하려는者이다 吾人은 現在以上으로 領土를 欲望하는곳도아니고 또한 滿洲를 어드려는것도 아니다 南京政府가 滿洲에 統治權을 미칠과가튼것은 可笑할일이다 南京政府가 支配하고 잇는것은 中國本省十八省中 겨우 四省에 不過하다 其四省에서도 眞正한 威令이 行치못하야 正當히 統治權을 行使하지못하고잇다

日本에 留學한 中國學生은 吾人의 友人이다 吾人은 只今 諸國과 同時에 友好關係를 增進하고 平和時代를 建設하려한다 右는 決코 吾人의 外交辭令이아니다 吾人의 自己利益이 此를要求하고잇다

여드름의治療藥으로비로소諸位希望에副케되엇습니다

지금外지는
엇재서 여드름藥의 評判이 낫벗슴가요……적어도理在에는顯著하기 만하는것이라거나 普通化粧水쯤으로는 所用업는것을아시는듯합니다 그러고여드름의原因인皮下脂肪腺에浸入하야化膿菌을殺菌하야 여드름을解消하는合理的인것이要求되게되엇습니다。

그合理藥
顔劑유키와리
ミン이 諸位의 自然한要求에서나온것입니다 더구나 아모리 惡性의 사람이라도 痕跡업시 치료해 바립니다 게다가 白美作用外지 加하얏슴으로 諸位의 感謝는 倍加되엇슴니다。

온저대지안코
化粧下로
面刀後에도
밥숙한고 혼感觸이 化粧下에 面刀後에 歡迎밧습니다 게다가 여드름、죽은깨 살거츰은데、吹出物豫防과 治療도되고 面刀後에 생기기 쉬운 丹毒等의 念慮는아 조업서지바렷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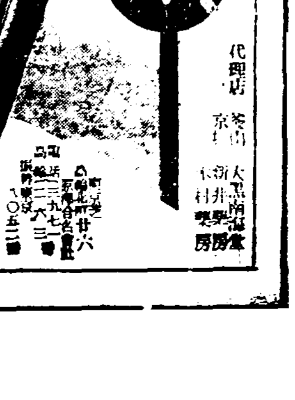
이러한
治療와美容의二重效果를 明確하게가지고 잇는 顔劑유키와리 ミン은 그옥한 香내와 아름다운 容姿를가지고 또 藥物的 効果를 有한 高山藥用植物等 調草의 花精을 研究하야 完成한 참말 美容과 治療에 諸位의 肌膚에 自然하게 滋養을 어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各家庭에 一瓶은 꼭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各藥藥店에 잇슴니다
定價 五十錢 一圓

化粧品店 여드름 化

代理店 京城 大黑商會藥房 新井藥房 木村藥房



朝鮮窒素社가 中心 金肥代를 無理히 引上

◇農民을 一層더 壓迫하든 奸計暴露로 漸次下落

조선농가에서 제일만히 사용하는 류산안모니아 비료는 농림성에서 외국류산 수입제한과 위체(爲替)관계로 외국류산의 앙등의 기회를 타서 한돈에 五十원내지 六十원가량하든것을 一백十원이상까지 올리어 판매를 하야 비료값을 모두 지경이 엇스며 더욱비료회사와 조선질소와는 보조를 가티하야 갑을 올리고 각처의 비료판매상의 협정 가격폭리를 하고 계절소동에서 부산물로 산출하는류산까지 매점(買占)하야 농민의고통을 무시하더니 최근에 갑작히 류안이 저락하기시작하야 최근은 한가마니에 三원五十전 즉한돈에 九十四원五十전으로 한돈에약十원이 하락하얏스며 이형세로나아가면 장차한돈에 五六十원까지 떨어질는지모르겟다고 총독부농림국에서는 추측하고잇다

이와가티 올라가기만하야 농민을괴롭히든 류안가격이 이와가티떨어진데대하야 미쓰이(三井)기사는 다음과가티말하얏다

류안이올른 근원인은 질소비료회사등에서 비가만히와서 류안이 잘되지안흔까닭에 조선에서 수요되는분량(매년약十六만돈)에 약三만돈가량이 부족한까닭에 그래서 올른다고하야 일본시장에서도 그런줄알고잇섯더니 그후에 그것은 생판거짓말이오 도로혀 三만돈가량의 생산과잉이된것이 판명되엇슴으로 급반락을보게된것이다 이대로나가면 五六十원까지 떨어질는지 모른다

外國硫安輸入制限 五日로撤廢決定

외국류안 수입제한 제도철폐 日本硫安價低落促進

【동경五일발전보】 정부는五일외국류안(硫安)수입허가제도를 철폐하기로 결정하얏다 일본류안이 한참 저락하얏슴으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하야 외국류안의 수입에는 허가를 엇게하더니 원가하락으로 외국류안이 이전보다 앙등하얏고 또 외국류안계항은 일본국내 류안생산업자의 가격인상을 억제하게되어 농민의 손해가만흠으로 필경 그제도를철폐하게된것이다 이제도의 철폐는 조선에도영향이미치어 조선내 류안시세를 떨어지게 하리라고한다

松亭橋完成 동소문밧 정릉가 놀기하야 ... 二백五十원 ... 十원 기부를하고 남어지부족한것은 부역하야 돌다리 송정교(松亭橋)가 완성되엇는데 ... 리인양씨의 송찬이 만타한다

禁聽裏開廷 二年을求刑

◇穩城工作會事件 언도는오는七일에한다고

함북 온성군영외면상화동(咸北穩城郡永興面上和洞) 박도남(朴道南)(三三)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사건의 공판은 五일오후一시반 청진지방법원에서 산하재판장(山下裁判長) 좌좌목검사(佐佐木檢事)립회하에 개정되엇다 개정즉시 공개금지를하고 심리하얏는데 좌좌목검사로부터 二년반의 구형이잇섯는데 사건은 조선내공작위원회(工作委員會)사건에관련된것으로 언도는 오는七일이라한다

節制聯合會에서 禁酒論文懸賞募集

부내 인사동一九四번지에잇는 조선녀자기독교 절제회연합회(節制會聯合會)에서는 「금주(禁酒)가 사회에미치는 리익이 무엇이냐」라는제목으로 현상론문을 모집한다는데 긔한은 래년一월말일까지라하며 一등十원一인 二등五원二인 三등二원 一인이라는바 자세한것은 동회로문의하여 조켓다고 한다

和信商會懸賞 抽籤結果發表

시내종로 화신백화점(和信百貨店)에서는 그동안 정내의각 ...

總投票數	九三五〇九通	
正解者數	一八五三通	
一等	市內嘉會洞一〇四番地	洪性根
二等	市內八判洞三九番地	洪鍾彪
三等	市內齊洞四四番地外一	鄭爾明
	始興郡北面道林里五七四	李在洞
	市內觀水洞一四九	金○○
	市內都染洞四一	黃瀚求
四等	〇〇人	
五等	十人	
等外	一〇〇人	

賭博하야 돈일코 告發갓다 留置場에

二十원을도박하야일코서

사괴도박으로 二十원을 쌔아기고 잘잘못을가려달라고 경찰서에와다가 류치된사람들이 잇다 부내원정(元町)四정목 신오랑(市九郞) 대도정(大島町) 一二〇번지 박명채(朴明彩)(一) 통의동(通義洞)二六번지 장원석(張元錫)은 지난四일밤 ... 시경 부내대도정(大島町)一번지 최순원(崔順元)의 집에서 초상이나자 그집에서밤을새우다가 도박을시작하야 전긔시오봉이나 장원석에게속아 가진돈二十원을 전부쌔앗겻다는것인바 그들三명은 룡산서에서 부검속되고 방금 사괴도박죄로 취조를받는중이라고한다

森林中에根據두고 大規模紙幣僞造

간도어란구산중에서동판으로 수만원을인쇄하야쳐원은사용

朝鮮人十一名檢擧

【간도발전동】 룡정(龍井)령사관 경찰서에서는 四일어란구해령(於蘭溝海嶺)산림중에서조선은행 지페十원권 위조범인조선인十一명을 검거하얏다 이들은 동판으로써 이미수만원을인쇄하야 약一천원은 조선안에서사용하고 또대대적으로 위조를 계속중이엇다고 자백하얏다

曹奉岩等은 新義州署留置

【신의주지국전보】 상해(上海)로부터 선단으로호인천(仁川)에 상륙한 공산당원조봉암(曹奉岩)등 七명은신의주(新義州)류치되엇다 ... 로부터 마중간 평북경찰부의 목(川木)경부보와 신의주경찰서의 중원(中原)고등계주임 등원(藤原)순사부장, 정상(井上) 순사등에 四일오전 十一시四十분신의주에 도착하야 즉시경찰서에 ...

李洙倬事件의 全州十二名은免訴

【광주】 서부사건으로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 추치되어잇든 리수탁(李洙倬)의 재산 ... 심에서 취조를 마치고 피의자十三인은 지난十一월二十九일에 전부가 면소되엇다 ... 尹吉?, 李桂安, 任弘燮, 蔡賢淑, 吳惠, 李弼昌, 金容益, 金快濟, 朱敬熙, 高允植 ...

八十老翁自殺

【강동】 지난一일 평남강동엽전(江東葉錢)압강에서표류시체를 발견하얏는데 ... 현면서광리(西光里) 高宗先(?)의 三(?) 어라는 로인으로 도정신이상이 생기어 그와가티 자살한모양이라고한다

今夜 第六回籠球聯盟戰

六日午後六時半 鍾路靑年會館에서

【戰順】 百合—후피、三角—OB、北岳—新進 普專—延專

主催 中央基督敎靑年會 後援 東亞日報社

雄基繁榮策 關係當局에陳情

淸城、雄基의猛活動 라진에 종단항 빼아 기운

장차개통될 ○○철도 종단항 씨가 상경 총독부토목과장을 ... 어될라진(羅津)의 제一기축항 발표하고 웅긔번영책에 대하야 ... 사가 아흔二十년후에 종료되며 다음과가튼 진정을 하얏다

一、현재웅긔의 항만 ... 三천(?)톤 ...
一、雄基港灣 一隻을 ... 四百米突을
一、開水湖에 一大貯木場을 ...
一、漁港施設을 ... 되게 ... 할것

豐基金蔘 月報進呈

列車에投石

부외하왕십리(下往十里) 六九五번지 김봉운(金鳳雲)(一○)이란 ... 三일오후 령시三十六분 ... 五三七호 렬차에 돌을던저 렬차의 유리창을쌔트렷는데 다행이승객은 무사하얏다

【피아노독주와 특히 ... 교(中等部學校)「코러스」의 ... 고한다

清凉里線住民代表 監督兩局長訪問

陳情結果形勢不利로 第二次住民大會準備

道知事訪問 最後로陳情

경전외 교외선 철폐반대에 분회를이르킨 三교외주민 대회는 날이갈스록 그 기세가더욱맹렬하야잇는데 작五일 청량리주민대회(淸凉里)의대표위원 木原芳太郞, 李昌業, 淸川忠久, 梁任潤, 今森根, 李性依, 青田定, 野坂武成 동八씨는 철간大보와가려전(吉川)철도국장과 산본(山本)체신국장을 작五일에방문하고 二천七백十五명의 서명날인을바든 진정서를 제출하고 날어키들도록 문부송본(松本)지사를 방문하고 마진정한바가잇섯는데 아직 확정적인언은 아니라하나 주민의민심이 진정의일단락을 고하고 그후불기는커녕 교외교통의 중요를 꼿처三차 주민대회를 열기로하얏다

한청세에싸지게 되엇슴으로 一동은당일오후 각신문사를 방문하고 곳주민대회보부노 동아가 거어코 초기의목적을 달하기위하야는 무슨일이 잇슬지라도 끗치지안코 극적으로 반대운동을 수일내로 제二차 주민대회를 열기로하얏다 한다

작五일에는 도지사가 부재중임으로 금六일에 경기도청으로 송본(松本)지사를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진정을한후에 어로써

既得權擁護 初志期於貫徹

◇清凉里線代表談 당국장방문하고 도라온

작五일 관계감독관청을 진정한위원一동은 다음과가려 말하얏다

권차 철폐문제에대한 주민과 반대의사는 백열적으로 신조에달한오늘 우리는 다만주민의뜻을 가장간절하게 합법적 수단으로써 목적관철을 괴하려는것이다 이지음어떠한 一부신분또는 당국자담으로서 교외전차의 빠스대행은 계도괴관에서 무궤도괴관에의 세계적 대세로보아 가장적당하다

郊外線撤廢 反對理由書

懇篤한九個條文 京電暴擧를指摘

◇二千七百餘名이署名捺印한 清凉里住民陳情內容

청량리선전차 철폐반대급전차개선촉진리유서(淸凉里線電車廢止反對及電車改善促進理由書)에 一천七백十五명이나되는 다수한주민의서명날인을바더 각감독관청에진정한 바 그리유서의내용은 대강소개하면다음과가트다

三十년래 경성청량리간에 운전하고잇는 청량리전차를업새고빼스를대용한다는 경전의계획에대하야 동부주민은 일치하 그폭거를 론란하고 반대하는리유를 들어

第一、전차는안전하며 발착이확실하나 빼스는위험하며코밧착이 또한전차보다 확실치못하다는것

第二、빼스는 신체가 약한이나 또는부녀는 승차하기가 불편한것

第三、다소간이라도 부피가잇는짐을휴대한 농촌사람이나 괴차려객을 종래전차를탈수잇는 편리한것

第四、동부인구가 증가하는것이다 사실 상품반(?)하야 종래의 조건이 편리하다 ...

第五、청량리의 삼림지대는 경성부민의 보건상 휴양상 극히 필요한 산책지로서 이에왕래하는 관광객이 만흠으로 ...

하는 편도되는것도 빠스로는극히불편한것

第六、전차철폐는 동부지방 외발전을 저해하는결과를생하는것

第七、경전은 채산상교외전차를부득이철폐한다고하지만 청량리선에 잇서서는 리유가되지 안는것

第八、장래청량리가활화하지 아니치못할 자려지사명의수행상이곳은 주요한교통괴관의완비는 극히필요한것

第九、현재전차의 불완전한설비에도 아흔가지 조건에각각해당한 리유를 상세히 술괴한 장문의 진정서를작五일부로동단체에 각요로당국과 민간각단체에 배부하얏다한다

電車와自轉車衝突

작五일오후 四시 二十분경에 서대문을 거처경성역에 가는제七八호 전차가 죽첨정(竹添町)一정목 八八번지 아플지나다가 二○○번지 박성우(朴聖玉)(二○)의차와 광희정(光熙町)一정목一九五번지 조선어학 오른쪽에 부다처 그를 전차의 온전수는 창고라쇠우에 ...

中國福州近海서 驅逐艦「早蕨」沈沒

七十명중十四명 만구조 失踪乘員은搜索中

【동경五일발전보】 구축함조 활(早蕨)은 중국 복주(福州)앞바다에서 풍랑에 표류중경사진몰하얏다 승조원七十여명중 十四명은 구조되고 거리는발표 구조에 노력중이다 조활은 배수량 九백돈 대정十三년의준공이다

奉天市民慰安音樂

【봉천】 봉천조선인청년회(奉天朝鮮人靑年會)주최로 봉천국선(?)에서 시민위안음악대회(市民慰安音樂大會)를 지난一일오후七시에 거행한바 봉천一류악사들의 합창, 독창, 그외 ...

木浦에大火 七戶를全燒

損害額은二萬餘圓 원인은 실인의 실화인듯

【목포전보】 五일오전一시二十五분 목포(木浦府)본정二목 뒤집에서 발화하야 순식간에 그리웃조선과선주식회사 지점장 천견(淺見)씨집에 연소하기시작하야 린접한가옥 七호가 전소되고 동三시二十분 진화되엇다 손해는二만四천 二백五十원(보험금二만二천원)인데 불에선 소방수一명이 부상하얏다 원인은 방금취조중이나 결인의 실화인듯하다고한다

【웅긔】 로부터 종조직상광(中村貞三郞)씨등 六인 ...

今日

月出 午後 ... 月入 ... 滿潮 ... 干潮 ...

(十二月六日(火) 舊十一月九日(辛丑))

法廷

◇地方刑事 ▲殺人 李 ...

◇覆審民事 ▲土地所有權移轉登記抹消請求事件 ...

◇國庫事 ▲土地所有權移轉登記 ... ▲貸金 ... ▲家屋明渡 ... ▲身分 ... ▲約束手形金請求 ... 株式會社 ... (以上言渡)

落穗集

◇……◇ 대경성의 신풍경의 하나는카페의 느러가는것이더니 이지음에는 카페가 극원회관이나 마루비루회관이니하야 엄폐한 기에는 무슨단체사무소가려가장을 하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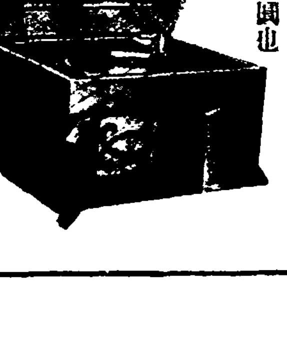
◇……◇ 그런데 이번에는「카페—맨」의 가장관심처리인「팁」에제한하는 카페의본임지인동경에관동치의 레플만一원권일로 하고낫에는「노—텐」(팁을 안준다는것)으로 하가로하야손님유인책에 부심하고잇다고한다

◇……◇ 「마루비루」에서는 二일부터 벌서 팁은一원이하일것과다른 대붐담마는 일홍의 개정내규에 게는 팁을 주지말라는 쳐도를실시하얏다고한다

蓄音器特別大奉仕!

弊社創立記念은 九月十五日부터 十二月末日까지 이임외에 大特價로提供하오니 此期를 놋치지마시고 御注文하시기 願하나이다

ユウスドー 八〇號 特價金貳拾圓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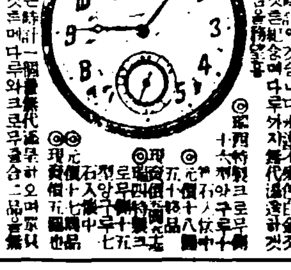
創立記念

注意 注文時는 先金을 要함 送料는 當主 負擔함 目錄請求는 三錢切手要함 / 代進呈通信文은 朝鮮文도 不關

特約代理店大募集 一道一店에限함 規則書는 郵切手添付하면 送呈함

大阪市大仁本町三丁目七拾番地 東洋蓄音器製作所 振替大阪一一九五九番

全世界的流行인瑞西製 特價



空前의 大特賣!! 大好評의 模範辭典이 五冊組合 단지 一圓

左의 大辭典五冊定價七圓을 五冊同時注文者에限하야 金一圓에大投賣

ペン習字辭典 一冊進呈

中央書院特賣部

愛의 手紙

裸體美人書

朝鮮語講習會 一

啓明俱樂部에서

조선어학연구회(朝鮮語學硏究會) 주최로 작五일 오후 五시부터 시내인사동 一五二번지(계명구락부)에서 조선어학 강습회를 개최하얏는데 긔한은 오는十七일까지 二주일 동안이요 강사는 박승빈(朴勝彬)씨이며 강습생은 전부三十五명으로 서대게교원이 다부분이라한다 ◇사진은 개강된 조선어 강습회의광경

地方論壇

公普校期成會總會

高川 一記者

「玉不琢이면不成器하고 人不學이면不知道라」는 古聖의말은 識者의 贅言을 要치안는 名言이다 洋의東西와 時의古今을 不問하고 名人達士가 教育의必要를 力說한것이다 一面一校制가 進行中에 있다 그런데 馬山面은 昭和五年에 普校設立을 決議하고도 이제까지 實現을 보지못하니 이 何故요? 그는 當局이 寄附金四千圓을 要求하는 關係다 地方民은 最善의 ... 期成會를 組織하고 寄附金을 募集하는데에 ... 지난十四日에 期成會總會에서 ... 熱誠을 ... 人은 ... 大抵寄附金四千圓을 募集함에 當하야 ... 이 資擔하는것이면 모르지마는 적어도 一千三百七十戶라는 馬山面全部의 負擔이다 그러면 一戶當 ... 이니 사랑하는 子女를 教育하는 ... 民을 ... 그로 不充分하다 ... 있을뿐이다 ... 志願者 ... 비록 ... 苦痛中에 公普校設立키를 바란다

高原公普의 學級을 增設하라

高原 一記者

高原公普의 兒童入學志願數는 年年이 三百名을 算하게되는바 이 三百志願兒童中의 入學數는 九學級이 關係로 隔年하야 一百五十名과 七十五名가량 밖에 못되고 半數는 就學치못하는 現狀이다 兒童人口全體의 就學率의 數字는 여기서 말할것도 없거니와 志願者數의 半도 못되는 入學率은 他에 類例를 보지못할 高原의 ... 公普의 ... 兒童教育의 切實한 必要는 ... 者가 敏敏할 ... 어도 志願者를 收容치못한다는 것은 普通教育의 本義가 아니다 高原公普의 現在九學級을 十二學級으로 만들어서 年年이 一百五十名兒童을 收容하게 ... 設하야 ... 定하게 ... 우리는 于先三學級增設을 要求한다 그리하야 우리의 貴한 兒弟도 하야금 單一人이라도 校門을 더 드나들도록하자 學級增設은 高原公普學父兄會及後援會의 年來의 宿望이었고 ... 노안다 ... 뿐지 ... 的施設을 ...

在學生三百名中에 缺食兒童이 六割

八할은 빈민자제로 영양부족 喬桐公普校의 慘狀

【강화】 강화군교동면(江華郡喬桐面) 일대의 ... 교동공립보통학교(喬桐公普校)에 다니는 아동의 ... 점심(點心)을 ... 아동이 六할 ... 그나마 소작농이 八할을 점하고 ... 는 놀라운 수자 ... 그들은 ... 해교장 대동(大藤)씨 ... 학교당국의 우려는 ... 구미마세배를 ... 하야 식양보충사상을 고취하고 ... 적으로보아 ... 리게될 지안할것이라 하야 ...

明太豐産으로 西湖津活氣

昨年보다 百駄以上이 多産 價格은도로혀低下

【흥남】 방금 명태잡이 한창인 西湖津에 입항하는 발동선 二十여척의 어획고는 배마다 三백바리를 넘어서 해안과 어장 ... 시장一대는 이 파도이 ... 興南현상이다 작년가격 ... 작년十월말일 ... 보았다한다

西湖津에明太잡이배入港한光景

筏橋浦에서 荷揚場을 設置

선박 출입처 매축해 하물처중 總工費四千五百圓

【벌교】 전남보성군벌교포(筏橋浦)는 ... 남선유명한 해산물의 집산지로 ... 남조선철도회사(南朝鮮鐵道會社)가 벌교를 ... 되면서부터 ... 로 면적 一천五백평을 매축하야 ... 준공은 소화七년도중으로 ...

青年一名檢擧

【담양】 전남담양경찰서에서는 지난三일오후六시경 정사복 경관이 다수출동하야 읍내강영 ... 씨의가택수색을하야 ... 를압수하는동시에 ... 청년을 검거하였다는데 그 내용은 비밀에 부치므로 알수업스나 ... 이로 취조중이라고 한다

沃川에 櫻花가 發滿

봄날가튼 날을 시사

【옥천】 충북옥천(忠北沃川)에는 지난 ... 날이 ... 따뜻하여 ... 철가려 옥천면사 ... 앵화(櫻花)가 만발하였다는바 ...

高靈郡民이 洛東架橋期成

한천과 대구, 거창을 연락하는 陳情委員猛烈活動

【고령】 경북고령군(高靈郡)에서는 년래로 숙제를 삼아 오든 합천(陝川)과 대구(大邱)거창(居昌)사이에 연락을 취하여가며 대구고령간에 있는 낙동강가교(洛東江架橋)운동을 맹렬히하며 오든중 지난三일에 낙동강가교긔성회를조직하고 다음과가티 간부를 선정하야 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 한다

會長 朴部又一 副會長 李正奎 ... 顧問 ... 李正奎 鄭雲興 久野逸三 相馬 朴部又一

強盜犯逮捕

【강경】 지난二十五일 오전一시경에 충남 ... 상동 ... 을 ...

被檢工面會 女工들이 要求

피검공석방, 간부개질 단행 罷業後大田郡是後聞

【대전】 대우개선, 임금인상등 요구조건을 관철코저 六백여직공이 단식동맹과업을 一주일이나 계속하고 그기아八명의 희생자를 내이고 조건대부분 승인하겠다는 회사측의 선언으로해고 직공권부복직하고 검속된직공 ... 요구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 그리고 지난二十九일에 경찰에서 ...

燕岐煙草額 十萬一千餘圓

一面當萬二千餘圓

【조치원】 연초전매국 조치원(鳥致院)에 있는 연기군일원(燕岐郡一圓)과 청주군강외면(淸州郡江外面)의 ... 조사한바에의하면 ... 一면당 ... 十萬一千 ... 원이라고 한다

金組指導村落 成績이 良好

【산청】 경남 산청군(山淸郡) ...

廣州農會費 滯納七千圓

【광주】 농조공황으로 말미암아 농민생활은 안정을 엇지못하고 놀고빈궁과 과아에 ... 어려고 ... 세등수성적이 극히 불량하다 ... 농회비 ...

盛況을 豫期하는 全州에 藥令市

各地에서 藥種集中

【전주】 전북 전주에 있는 전주약령시(全州藥令市)는 ... 금년에도 ... 十二월 ... 한다

上南川護岸따라 午東道路工事

불원간 착공을 하게될모양 工費六千餘圓으로

【마산】 구마산조선인이 ... 상남동(上南洞) ... 마산부에서는 ... 상남천(上南川)은 매년하절우기 ...

癩病豫防會

【마산】 라병자 근치예방 ... 마산에 ... 경남도 ... 조선라병예방협회 ...

高靈畜產森林解體

【고령】 경북고령군(高靈郡)에서는 지난二일에 삼림조합(森林組合)과 축산조합(畜産組合)을 열고각조합원의 ...

光州

【광주】 매년 ...

아버지집에 放火한子息

첩의집에 나무안준다고

【강경】 지난十五일오후 五시 충남론산군은진면 남산리(論山郡恩津面南山里) ...

十五六歲少年 汽車에치여

【안동】 ...

南鐵社長來麗함에 市場土地問題注視

전토지 소유자에 매도한다하고 邑當局은他人을物色

【려수】 려수읍(麗水邑) 당국에서는 오랫동안 현안중에 있든 려수시장문제(麗水市場問題)를 남철사장(南鐵社長) 근진씨가 래려하게되는것을 기회로 결정을 ...

年產五萬圓의 全州高山柿

各地의注文殺到

【전주】 전주군고산(全州郡高山)에 생산되는 ...

色衣獎勵等 廿條項可決

【완도】 지난十六일 완도군청 회의실에 완도각면장 교장 ...

同情音樂會

農事幼稚園에서

【창녕】 경남창녕읍내(昌寧邑) ...

早婚弊害矯正 農村學校經營

二十九項目의 決議를 發表 忠南振興研究會組織

【대전】 충남농촌진흥연구회(農村振興研究會)는 ...

珠山農蠶校 許可가 遲延

五천六백원을 저금해 두엇는데 期成會席에서 問題

【보령】 충남보령군주산(保寧郡珠山) ...

全南道에서 一月訓導試驗

【광주】 전라남도에서는 ...

海苔盜難防止

【하단】 지난二十일오후 ...

第一劇場 ... 明暗二女性 ... 부러진날개 ... 빛나는日本青年 ... 朝鮮劇場 ... 怪人TTT ... 신부選手權 ... 어데 ... 못난느냐 ... 우리아들 ... 박크다드盜賊 ... 假面의王者 ... 아리부

學藝·家庭

사흘동안 백열전을 계속한 한글토론회속기록 (十四)

본사주최

第三日 어미활용문제 (3)

講演

段活用說便 朴勝彬 (3)

다음에는 략음(略音)에 대하야 말씀하겠습니다。인류의 어음은 발음을 촉급하게하는 따라 략음 즉 촉략음(促略音)이 생기는것입니다。조선말의 용언의 어미에 략음을 내는 관습이 잇습니다。략음은 어미의 변동이 아닙니다。그원음과 가튼말에 그음이 촉략되어 나는것입니다。일본문전에 음편(音便)이라하는것과 매우가튼것입니다。그런데 이 략음으로 나는데 법측이잇습니다。

후음이 아닌음즉「아」줄이나「하」줄의음이 아닌 음의「으」단음이 략음으로 날때에는 중성「ㅡ」가 줄어지고 그발성음이 그우의음에 바침되는 음으로 납니다。례를들면「머그고」가「먹고」로、「시므고」가「심고」로、「기프다」가「깊다」로 되는것 따위입니다。이와가티 략음이 나는것은 인류의 발음에 당연히 잇슬수잇는 음리입니다。어느나라를 물론하고 대동소이는 할망정 략음이 다잇습니다。영어 Make 의발음「메이크」는 느린발음이오 그축략된발음은「메잌」입니다。의 발음이「베트」와「벹」으로되는것도 가튼관게 입니다。영어에는 Bring의발음「쁘링」Strong 의발음「스트롱」과가티 B.S.T.만으로「쁘、스、트」의 발음을 내게됩니다。Make more의발음에는「메이크」가되고 Make soon의 발음에는「메잌」이 되며 Out the의발음에는「아우트」가되 Outside의발음에는「아웉」이 되는 것은 조선발음언어미에 략음이사용되는것과가튼 관게입니다。그러고 일본말에도 략음으로 나는상태가 잇습니다。다음표를보십시오

日本語	英文記寫	朝鮮文記寫
學校(原音)ガクコウ	Gaku Ko	가구고
(略音)ガクコウ	Gak Ko	가ㄱ고
私 (原音)ワタクシ	Watakushi	와다구시
(略音)ワタクシ	Watakshi	와다ㄱ시
發展(原音)ハッテン	Hatsu Ten	하쓰(두)데ㄴ
(略音)ハッテン	Hat Ten	하ㄷ데ㄴ

후음이외의음의「으」단어미가 략음으로 나는때에 그발음의원측은 아서 설명한바와가티 중성「ㅡ」가 줄어지고 그발성음이 그웃음에 바침되는 발음으로되는것입니다。그와가티「머그」가「먹」으로、「기프」가「깊」으로략음되는데는 그다음에 오는 조사의 음에 관게가 잇는것입니다 제二류의 조사「고、다、자、서」등과가튼「ㄱ、ㄷ、ㅈ、ㅅ」등이 초성으로된 음을 맛나는때에략음되는것이 원측입니다。즉「ㄱ、ㄷ、ㅈ、ㅅ」등의 음은 이것이 바침으로되는때는입성(入聲)이되는것입니다。즉 촉음이되는것입니다。그발성음들은 촉급한 발음이나는 성질을 가지고잇는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것은 제一류조사、즉원음미테 오는 조사의음에는「가、다、자、사」행의 음이 업고 제二류조사、즉 략음미테오는 조사의 음은 원측으로다「가、다、자、사」행의 음이라는것입니다。

이 원측에 다소의 례외는 잇습니다 원음에 련접하는 조사에「쇼서」가 잇는데 이「쇼서」의「쇼」는존경사「시」와 조사「오」즉「시오」의 변한것입니다。존경사가 사용되는때에는략음이 사용되지아니합니다。이것은 말을 칭주하는 습관에 의한것입니다。또「나」행의 조사는 그발음의 느림과 급하과의 구별에 의하야 원음과 략음에 련접하는 두가지로 되어잇습니다。「머그니、머그나」의「니、나」는 느린 발음으로나서 원음이 사용되고「먹니?、먹나?、먹네」의「니、나、네」등은 촉급한 발음으로나서 원음이 사용됩니다

「가、다、사」행등의 음이련속하는 경우에는 그발음이 촉급하게 나는것은 음리상 당연한일입니다。아서말한영어의 make more, make soon과、일본말의 ガクモン、ガッコウ등의 발음의 다름도이 음리에 의하야느린음과 촉략한음으로 표현되는것입니다。

또아서 설명한「머그」가「먹」「기프」가「깊」으로 되는원측에 대한 변측의 음도 멧개가 잇습니다。하나는「르」음의 략음이「ㄷ」으로되는 것입니다。드르며、듣고、무르며、묻고 시르며、싣고 와가튼것입니다。일본말의 トリテ(取)의략음トッテ、アリタ(有)의 략음アッタ와 흡사한 상태입니다。이것은 ㄹ와ㄷ은음리상 서로가까운관게가 잇는까닭입니다。또한가지「지으면」(作)의 략음「짓고」는 그단어가 원래「지스」로서「스」음이 도래되어그느린발음은「지으」로되고 촉략한 발음은「짓」으로 된것입니다 또 특수「우」단의 음「쉬우며、쉽고」는 그단어가 원래「쉬브」로서「브」음이 도래되어 그느린 발음은「쉬우」로되고 촉략한 발음은「쉽」으로된것입니다。

후음「으」단음의 략음은「으」가 략되면 경음조가 나고「흐」가 략되면 격음조가 납니다。용언어미의 원단음「으」에 략음「ㅅ」되는 발음은 그「ㅅ」을 경음조부호로보아도 조흔것입니다 그러고 용언 어미의 원단음「흐」가 략음으로 발음되는때에는「흐」음이 생략되고 격음조가 나서 그아래음이 격음으로나는것입니다 례를들면「노흐며」(放)의략음「노코」는「노흐고」의「흐」가입서지고 그 다음에잇는 조사「고」는 격음조로 되는것입니다「만호다」가「만타」로 되는것도 가튼상태입니다。주시경씨의 견해에는 이러한 어음을 ㅎ의바침된 발음이라고 보앗습니다。그러나 ㅎ는바침으로되지 못할 성질이고「노코、만타」의발음은 분명히「노」와「만」의 발음은 그대로 잇고「고」와「다」가「코」와「타」로 변한 발음입니다 그런고로 그말을 발음대로만 적는다면 분명히「노코、만타」입니다。그러나 문전상(文典上)단어의 구분으로 관찰하는 때에는 그「코、타」가 고유한 조사의 단어의음이아니오 용언어미의 ㅎ음이 업서진대신에 생긴음조인고로 그것을 구분하야 적으려면 그음조에 부호를 요구하게 되는것입니다。내가 사용하려하는 경음부호 ㄱ는、그요구에 응하야 생긴것입니다。즉ㄱ、ㄷ、ㅈ에 한획을더하야 ㅋ、ㅌ、ㅊ되는 사형에서 그한획을 분리시켜서 격음조의 부호로 정한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것외에 략음에 어미음절전체가 생략되어버리는 변측음도 멧개잇습니다。례를들면「업스며、업고」「안즈며、안고」「할트며、할고」등입니다。

원래 략음은 원음이 발음의 습관에따라 촉략된음임으로 불완전한 발음、즉병난발음입니다。그런고로 음은 단어정리에 표준이되지못할것입니다。말을배우는 어린아이의 어음을살펴보면 략음이사용될 경우、즉「고、다」등제二류조사가 련접되는 경우에도 원음을 사용하는때가 만습니다。례를들면「머그자、가ㄴ다」하는따위입니다。아동들은 언어와법측은 왜달아가지고 잇스나 습관에는 아즉덜커저잇는 연고로 단순한법측에의한 발음을 내는것입니다。

원음을 략음으로 발음하는것은 습관에의하야된것인고로 그 습관이 갓지아니합니다。이표를 보십시오

	原音	略音
例一 食	머그자	먹자
例二 受	바드고	받고
植	시므고	심고
可	가흐다	갛다
例三 痛	아프다	【아ㅍ다】
呼	부르고	【부ㄹ고】
例四 深	기프다	깊다
如	가트다	같다
例五 短	짜르고	짧고
異	다르다	다르다

이표의 례一과가티 략음이 확립된것도잇고 례二와가티 원음과 략음이 가티쓰이는것도 잇고 례三과가티 략음을 아니쓰는것도잇고 례四와가티 지방혹은 사람에따라서 략음을 쓰기도하고 아니쓰기도 하는것도잇고 례五와가티 략음을쓰는 습관이바야흐로 성립되어가는 도중에잇는것도잇습니다。

이러한 관게를보면 략음은원음과 가튼발의음이 습관에의하야 촉략하게발음되는것임이 분명합니다 (시간부족으로 박승빈씨강연중단)

明日劇場男女場員의 本社來訪

風雲兒蔣介石의鄕里 奉化溪口村遊記 (中)

南京特派員 申彥俊

蔣母墓拜觀

雪竇寺의 中腹에蔣氏親母의 墓가잇다 蒼松翠竹에 天日을가리운 山道는 새로히 세멘트를 깔고 廣이 約二十尺이나 되는 큰길을 만들어 노앗다 平地에서 約五里를 길이다

길의左右에는 銀杏木과 香木을栽培하고잇다금 伐木을栽培하얏다 蔣母墓는 碑石과 그것에 小規模의 廟宇를建築하야한 本氏의 墓所와 다름업시 質朴한것이 豫想以外다 廟宇에는蔣氏自筆로『慈庵』이란 두글자를 쓴懸板이 달리고 廟內에는 孫文의『祭蔣母文』과 王一亭畵伯의筆로된 岳母敎子圖(岳飛가敎子하는그림)와 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의『慰勞蔣中正同志文』『國民代表會議慰勞蔣中正同志文』等이 걸리고 廟의 中央에는 風采凜然한 蔣母王氏의 寫眞이 걸려잇다 墓碑에 蔣氏『哭母文』이 색이어잇다 그글에는 母氏의自己敎養하든 故事를 기록하얏슴을이다

蔣介石을 나은 王氏는 果然 어떠한 人物이엇든가 그의 어린 蔣介石에對한 敎養을 엇지하얏든가 蔣氏의『哭母文』에는 그大槪를 알에가티 기록하얏다

母는일즉 三十歲의 配偶를 일코 靑孀의몸으로 獨子를다리고 가난한 살림을 扶持하면서 介石을 敎育하기에 盡心盡力하얏다 일흔 새벽에 이러나 김밧에서 어린介石을뉘어노코 혼자 김을매고 주린배를 冷水로써 채우고하로를 김밧에서 땀을 흘리시다가 저녁이 되어 어슴어슴 할때에는 山으로 가서 저녁 지을 나무를 모아 가지고 가슴에는介石을 안고 등에는 호미와 낫과 나무를 지고 집으로 오시어 밤을 지엇다 그러케勤勞하든터이지만 잇다금 살이업서 주리는때가 만엇다 하로종일 로동하기에곤한 몸도 도라보시지 아니하고 밤에는 深更이 되도록 介石에게 글자를 가르치시고또 自身의 修養과 子息을 가르치기爲하야 獨習으로 古書를 硏究하시엇다 介石이 十餘歲가 되도록 佛經에 갈 學資가업서 母親은 親히 四書를 가르치시고 特히 古今興亡의 歷史와 英傑의 傳記를 이야기하시고 介石을 督勵하시엇다 飢寒과 貧困과 싸우시면서 四十平生을 보내시다가 身體虛弱하시어 孤子介石을 노코 이世上을 떠나셧다

이『哭母文』은 文章보다도 眞摯한事實熱情이는文句로써 보는이로하여금 一掬의눈물을 흘리게한다 그러나 그런偉大한母가잇섯기에 오날 中國의 蔣介石이가 난것을 생각하며 母性의 偉力을 다시금 感嘆케한다

어린蔣介石은 果然어떠하엿든가 나는 老僧에게 蔣氏의 어렷슬적일을 물엇다 老僧은 나를 蔣石에 안치고 柔言부어 노코 이야기를시작한다

蔣總司令의 어렷슬때 말씀을 드르시렵니까 그는 어려슬적부터 尋常한사람이 아니엇지오 저기저 龜石과 獅子石을 보십시오

하고 老僧은竹杖을들어 가르친다 그怪岩은한나는 거북갓고 또한나는 獅子形이다 참으로 天然的으로된것이 人造로 만들어세운것갓다

저獅子와 거북의 配合으로 蔣總司令이 出生되얏답니다

다시그는말을 니어

그는어려슬적부터 勇氣와俠氣로 이洞里사람들의 경탄을밧엇답니다 洞里에 무슨일이잇스면 자긔일가티 자긔가 마타處決하고 방종한 村民에게는 自己집의밥을가저다 주고 惡한村民에게對하아는 自己가 그를說服하고 訓戒하야 어릴적부터 洞里어른노릇을 해답니다 그는남에게지는 일이업섯습니다 自己가 올라고맷든 일이면 죽기를내가하고 뭇붓내버리는 剛直한 性格이엇습니다

老僧의재미잇는이아기에 해는 西山에기우려젓다 가을丹楓입사귀에 비최이는 夕照와번적거리는瀑布는金山의 一幅의 그림갓다

都會의悲歌 …… ①

기픈밤어둔거리에 구슯다!『야끼모』소리

◇한숨과 눈물에 젓는 그들의 생활

崔永秀

都會— 그것이 歡樂의 象徵이라면 悲哀와 눈물이 또한 그곳에 업슬수업다 가장밝은것이 都會일진댄 그곳에 暗影이 또한 업슬수업다。

네온싸인이 번득이고 붉은술이 넘처흐르고 享樂에 陶醉된 靑春의 우슴이 알득이는 그裏面에는 찬서리쉬치는 어둔거리에 車輪과가티 사모치는 한숨 검은 그림자가 잇는것이다。그리하야 都會의 脈搏은 날뛰는것이며 生命은 存在하는것이다

×

『야끼모—모 야끼모』

겨울의밤! 어둔거리에 窓그림자를 차자서 굴르는 구두다 박휘소리 뒤밋처 숨차고 찰랑하게 들리우는『야끼모』소리、대상생이집에 깔이업는세상이라『야끼모』장수이들 배人속야 찻슬러업스니 긴긴밤거리에 둘려우는『야끼모』소리는 굶주림에 시달린 창자의 絕叫입에 틀림업다。

이러한『야끼모』장수야 말로 완전히 街頭勞働의 斥候隊가아닐수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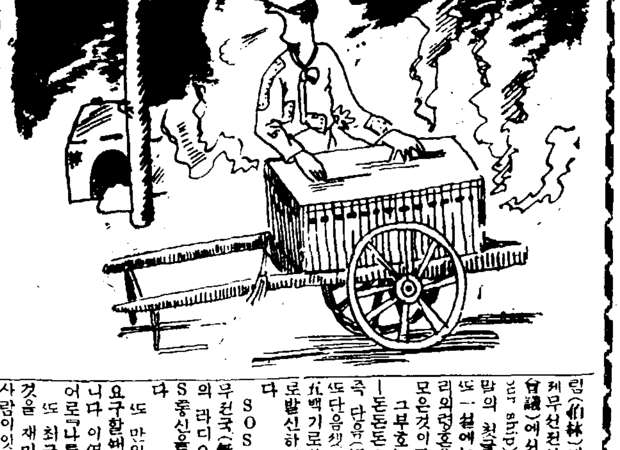
눈이 퍼붓고 바람이 — 고요한 장안을울리는 느진밤에 김이 무럭무럭나는 구루마를끌고 밤새지도려다닐때 들창으로 들리는 코고는소리처럼 야속한이업슬것이며『여보야끼모장수』하며 들창을열고 부르는 소리처럼 다정스럽고 고마운소리는 업슬것이며 불빛이 밝게 비치는 들창의 그림자가『야끼모』소리를듯고도 모른척하는 것처럼 원수스러운것은 업스리라。

×

이러한 그들의한숨이 그날에서 그날— 어둔거리로 흐르는곳에서 도회의 밤은오고 또밝는다。밤을새이이다십허 하여마치冷藏庫속에 드러간 쥐색기가치 얼어빠진몸으로 도라와서는 철업시 코고는 어린자식과 시름업시 얼골만바라보고잇는 안해압헤서 돈을세이고— 세인돈에서 고구마갑을제한 몃푼의 동전이 안해에게로 간다。

얼마안잇서 동리쌀가게에는 이러한사람들의 안해가와서『쌀한되하고 콩五전 어치만 주세요』—。

疲困에잠긴몸을 눕히여 잠들려는 그의숨결과 옹솟헤서 죽끓는 소래가 二重의 에레지(Elegy)를諷吟하고잇슬뿐이다



【新語解說】 SOS와OK

요즘음『구해달라는 말』을 SOS라는말을 합용습니다 이SOS란뜻이 무엇인지아십니까

SOS는무선전신(無線電信)의 부호로배가해상에서파선이 된때에 구조를요구하는신호입니다

이것은 一九〇六년에 독일백림(伯林)에 열리엇든 제一회국제무선전신회의(國際無線電信會議)에서 작정된것으로(Save our soul)『우리배를 구하라』는 말의 첫글자만 빼서쓴말입니다 또 一설에는(Save our ship)『우리배를 구하라』의 첫글자를 모은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부호는 돈돈돈 쓰—쓰—쓰—돈돈돈(、、、———、、、)즉 단음(短音)셋、장음(長音)셋、또단음셋으로 어떤 배에서든지 五백기로사이클의 전파(電波)로발신하게 규정이 되어잇습니다

SOS의 발신중에는 부근의 무전국(無電局)은 一체로통신의 라디오의방송을 쉬치고SOS통신을 방해하지 안토록합니다

또 만일 무선전화로 구원을요구할때에는『메—데』라고웨칩니다 이역마국공통으로 불란서어로『나를구하라』는말입니다

또 최근에『조타 그러타』하는것을 재미삼아 OK라고 하는사람이잇습니다

이것도 전신략호로 (All correct)『교정다된것』이라는말을 략해서 쓰는것 입니다 그러나 또 一설에는 불란서 어떤지방 이름의 략자로 OK에서 나는 술이면 상등이라는 의미에서전화(轉化)된것이라고도합니다

劇과映畵

劇評 明日劇場一回公演

劇藝術研究會 柳致眞

요즘 一時에 叢花라는 傑作劇을 비롯하야 朝鮮의 演劇熱은 過去의 그 荒究한데 比하아서는 次次 그 活氣를 지으려하는 感이 잇다 이 氣運을 타서 우리는 또 여기에한 劇團을 마지하게되엇슴을 깁버한다 明日劇場은 어떤『못토—』아래서 그들의『明日』을 約束할런지 아즉그 宣言을 하지안햇다 그러나 우리는 그 宣言을들을 必要는 업다 그들의 事蹟이 보나 歲月的으로 그들의『明日』을 說明하야 줄러이니… 그러면 創立第一週의 事業을 보자

×

—名人日記—

文藝部編으로나온 名人日記는 名人의눈에비초인 어떤瞬間 瞬間과 거리의 斷片이다 三四分밧게 아니걸리는 斷片이 四場으로 連續된것이나 이것은말하자면 劇이라기보다 도액손(動作)으로 쉬노흔 斷片詩다 簡潔한 裝置와 아울러 近代的인 斷裁調를보여주려한것이다 首肯할수잇다

그러나 不幸히 징글징글한 西部活劇이나 보든 朝鮮의 觀衆에게는 그 輕快味를 理解할리이 업섯다 그들에게는 입에차지 안는 茶氣나 씹는것가태서 싱겁고멋적엇다

各演技는 너무나 (새로너무나)瞬間的이라 잡아論할것이업다

×

—佛面鬼案『兄弟』二幕—

이作品은 愛蘭作家T、C、머레이의 作長男의 權利 (Brother)의飜案임은 勿論이다。웨 (무슨心事로!) 原作者의일홈은숨키는자? 이것은 旣成劇壇이며태犯한 醜로납분 習慣의하나이다。『明日劇場』이이 惡習을 그냥 遺産바든것은 남부끄러울일이다。原作者의이름을거러 무엇이 恥辱일가? 作者에對한 體面上으로도 그래야만할것이오 우리의良心上으로도 그리 아니치못할일이다。그뿐만아니다。劇團의 權威上으로보아도 其不於 宣傳上으로도 너절할게 누구누구案이라해노는것보다야 멧갑절나흘지모를일이아닌가!

그것을 그러어물어물하게 自己이름미러다『案』字만부처서내는것은 너무나 鐵面皮的行事다

『兄弟』는餘地업시 失敗다。第一劇의 呼吸을마추지 못하가며 문에『크라이마스』에까지引導해 氣分을조절시킬 아모런 用意를 사지못한다 이劇이 가저야할重要場面의 沈痛味를 조금도늣가지못하게한다。오히려 그沈痛味를늣기게해야할 場面을 正反對의喜劇으로 만드러버렷다。例를들면『크라이 막스』에兄弟의鬪爭하는場面이 그것이다。觀衆은이때그들兄弟의 不幸한 直面하야 숨을죽이고 잇서야 할것이다 그것을 웃게하야버렷다。可嘆! 또그리고 照明이다。第二幕에 와서는 寂寞한深夜를 나타내기 위하야 좀더光線을 集中시킬必要가 잇지안흘가。兩幕의낫과다름업시光線은 放射되엇다。이런 照明에서 엇지 保守的愛蘭農民의沈痛味를求할수잇스랴!

演技로서는아버지(朴齊行)가 性格的이엇다。어머니 (南宮仙)는좀더 自己役을研究하야주엇스면한다。너무나 安易에 써커바린感이잇다。

×

—佛面鬼作『어둠에서』—

이單幕劇은 발서 筆者記憶으로는 세번째 上演되엇다。內容은 말하지안해도 이미紹介되엇것지마는 東學亂에서 取題한것이다 問題가 우리의問題인만큼 보는사람으로도 亦是그만큼關心을 가지는것가탓다 作品으로도 잘되엇다

金仁三(沈影)이 演技者가 가지는 조흔點이살앗다 朴聖學(徐月影)無難으로 洗練되엇다 그러나 그의 妻(金鮮英)은 가모리 쉬엇기루서나 너무 풀이업다 熱을낼때에는 亦是熱을내어아만 다른演技가 살지안흘가?

×

—森間獨唱—

森間獨唱이란 이구역질나는 遺品을 이劇團亦是 相續바닷다 이것은 自己自身을(따라서 自己事業을) 스스로 卑劣하게만드는 頹癈이아닐外! 너의『演劇』을 사랑하는者는 決코 너의『森間獨唱』과는安協하지안는다 그러고 너의『森間獨唱』을 사랑하는者는 決코 너의『演劇』과는 妥協치안코……

되지도안는 森間獨唱 때문에 劇內는 말할수업시 淺薄하야저서 다음瞬間에 卷土重來할演劇에 對한 期待를 餘地업시 흐려어바려고만다

明日劇場의 指標가 여기에서 버서나지못한다면 우리의 期待는 半以上 어그러지는셈이다

×

이劇團은 將來性잇는 演技者를만히가젓다 좀더自重하야 그『허파—트리』에나 媚態에 健實한『明日』을 約束하야 주기를 바란다

×

全幕을通하야 舞臺裝置에 黑幕을쓰서낫스트를單純化하는等 金貞土氏의 要領잇는 準備가 보이여서 愉快하얏다 (끗)

學生劇界에 새로운消息

第一回普專學生演劇會 十二月八日밤七時公會堂

근래 학생극이 전조선적으로 왕성해가는 긔운을 보암에따라 시내 보성전문학교 학생회연극부(普專學生會演劇部)에서도이번에 十二월八일밤七시에 시내 장곡천정 공회당에서 제一회보전연극회(普專演劇會)를열어조선학생연극사상에 새로운 페이지를 더하리라는데 레퍼토리는 다음과갓고 입장료는백권一원、청권 五十전、학생권三十전이라한다

1、三等水兵말틴 全十場 타프렐、따—링作 全一幕

2、荷車 옷로—、필러作

癩豫防協會寄附金

▲二百圓大岸敏介▲百圓葉山千花▲五十圓尹致旺、宋鎭禹 近藤常尙▲十圓川口利一▲二十五圓安藤源次▲二十圓伊藤泰吉、田島重吉、森藤周代、泉初代▲十五圓花月食堂米村幸吉外女給一同 ▲山脇熊人 筒井竹雄、八木信雄、杉田喜作 ▲十圓里見卓郞、西村眞太郞 ▲八圓大坪正二▲七圓堀田貞義▲五圓中村健太郞、石崎康、無名氏、喜利惠美喜、畑田研川、上野盛一、山하사子、淺川藤次、關茂、井上昇、福江兼好、稻田美江子、梶原司、小野綱方、西村善克、內藤香椎、日高博行▲四圓五十錢福田文海、金永修五、笹間之▲四圓島根八郞、富根八郞、富樫吉十郞、富野井喜太郞、初根兵三、岩田茂三、熊谷一郞、吉田正一▲三圓九十錢川尻忠▲三圓稻田壽生、饒崎廣行、姜明熙、劉在彭、中村武二、朱在虎、岡田恒松、淸水正五郞、竹村虎太郞、佐野吾作、谷哲次、海部巖▲二圓六十錢森六治▲二圓五十錢朴坡▲二圓二十錢宮迫幸雄▲二圓金川繁一郞、椎名已之助、齋藤秀治郞、森田省三、申元照二、松本信三郞、奥香、安樂兼行、湯淺伊三郞、王熙弼、李柏基、大谷ふみ子、稻田米子、金莊禹、松田關三郞、具泳淑、井家伊作、大池一郞、大庭虎太郞、布田正、山本辰夫、千代本內よし、同ひさ、同みき、同あい▲一圓五十錢池田國雄、林金喜、大野靜祐、濱津理、[illegible]承暻、田畑又男▲一圓八十錢神島新吉▲一圓小林鶴治、菊池德次郞、具鍾珪、濟武夫、東凰茂、成見勳、松尾猛、萩原豐、小田作之介、朴均轍、吳鎭流、三浦藤三、大保正毅、河瀨、金星漢、上野九市、金榮世、朴慶煥、金志淵、鄭命吉、秦陵利、任衡根、任學根、小野樹馬、馬淵牛次郞、木內榮治、木內源、崔雲霞、中尾龍作、李奎浩▲五十錢三野良正、林十三、牧野德次、博田一二、本鄕友次郞、本多基隆、中島富一、緖方保次、三浦勇、辻秀雄、金宅源、尹介里、岡本秀太郞▲七十錢宋基榮、崔東奎、李德林▲六十錢崔野丸善、上山長作、富永實穗子、塚本哲子、大野キン、芝幸江、竹下悟、山路阜藏、小林二郞、原本軍藏、大山文子、舟崎良三、原田太三郞、稻垣規矩郞、井上勝、金容完、李永得、金完根▲五十錢河榮龜、李玉順、崔貫淑、崔大吉、金平順、李性順、鄭豊鎬、兪文真、李玉順、申貞喜、李李喜、鄭鍾福、金敬淑、金一福、金正熙、鄭七開、齋藤照夫、孫俊喆、申鉉昌▲四十錢咸興淑▲三十錢韓慶喜、吳太善、濱野義正、庄司淸次郞、盧在漢、金喆▲二十五錢安明順、金四成榮、山下春枝、郭魯萬、金峰洙▲二十錢吳次龍、吳恭任、安貞熙、劉錦、安鳳順、權敬子、金惠子、金鳳子、洪容南、李壽童、金貞坤、金錦喜、馬啟姬、宋忠義、崔英順、兪玉澤、羅介淑、尹終媛、李敬子、吳仙鶴、韓香潔、崔光喜、崔命淑、朴基順、趙丁禮、崔玉姬、李明淑、金德鎭▲十五錢朴福童、金貞淑

十二月一日

累計二千九百八十二圓也

▲六十圓尹相喆▲二十五圓姜重欽▲一圓孔世鏞▲百圓周防正季外家族、李炳鎬、李應璉▲二十圓朴福慶、李允楨▲二十五圓方禹三▲二十圓金仁奎▲十圓松尾마사▲二十圓高殷云▲百圓金[illegible]鎭▲一圓林도구▲十五圓加來龍夫▲十圓大坂宗夫、山田貞弘、田中從之▲五圓飯田隆、閔內義、利府良司▲三圓春日嘉久、西中五郞、金济楨、日高盤一、中山喜雄▲二圓湯田忠雄、佐竹高行、富田川宗吉、脇田新作、金尙泰▲一圓永倉二男、小野淸勝、望月미루、下田美照、後藤幸立、則松重勝、渡邊銀藏、西田律造、村田郁一、鈴木忠七、阪井克三、木內小冬、金克南、伊藤로시、久田吉五郞、齋藤源吉、肥後其助、楠見勳、藤井庚子郞、山口太一▲十錢中森美知子▲一圓中村一郞▲五十錢 朴勝載、裵長成、金仁淑▲三十錢[illegible]至▲二十錢藤井富太郞、吳致 計六百十二圓(第一回分)

新刊紹介

國勢クラフ十二月號 ▲經濟大勢圖表、所得稅概觀、本邦農產物總產額、本年度列國麥類產額、雜穀類產額、交易物價の比較、滿洲の貿易、支那の貿易、金融、財政、交通、通信、其他 發行所東京市京橋第一相互館 國勢社 定價二十錢 振替東京三七六番

魔都의香불

方仁根 作 李靑田 畫

(二十二) 음모 (1)

국현은 천청하고 이애기나하드시 바로누워 입을 석버려고 코를골며 식식잣다。숙경은도려와서 이것을볼때 무섭기도하고 인생의 괴운찬얼굴가 그싱겁게 썩버려고 힘업시 숨쉬여마다입에서 술물 새여나와 흐어지는것가티보히며 숙경은 한신스러웟다。저맥업시 느려진 흙으니가 내남편인가?하고 숙경은새삼스럽게 환영을 느끼엿다。

『영감 주무서요—』

하고 자는남편에게는 이만츰 목소아말하여도 괘찬을레지하고 화푸리하듯소리치엇다。

드렁드렁 골든 코소리는 개고리나 맹꽁이울음 그치듯 석런치다。

『왜응 누구야』

국현은 청을 예—흘린것을숙드러마시며 누에처럼 고개를번쩍들고 눈이동그래서 두려번거린다。

『저에요』

조금권과는 판관으로 상글상글우스며 말하엿다。

『아—니 고새 잠이 드셧서요』

『오늘은 어써케곤한지 — 그런데 왜 자지안코 지금것잇소』

하고 국현은 이러나안커 담배를부처믈엇다。

『자는게 다무어에요 아휘하고 여래것 쌈을하고 낫답니다』

『쌈이라니?』

『쌈이면 뭐 이만 커만하다구요』

『왜?』

『글세 이보서요 그 러달씨말을하고 혼인이얘기를하여 커알어듯도록 타일느지 안햇서요그랫더니 톡!하는소리가 커는걸 혼안해요!그런사내는실혀요! 거절해요!하고 앙탈이 커덤쓰는구면요 어써케 무안한지 글세 어미라고 그러케 커를 위해서 지성것하는데 그런법이 세상에어되잇서요 어써케 분하고 섧은지—커도 친어미아니라고 나를 업는녀겨서 그러지 어써면 그럴도리가잇서요』

하고 숙경은 고개를 외여쌔고 시름업시 눈을 맘거니써서 면데를바라보며 울듯한 표정을지엇다

국현은 몹시 귀염고어커려워

『아니그애가 미쳣서 부모시키는대로 오키이 순종할것이지 건방지게 무슨소리람』

『글세 드러오는복을차내버려도 분수가잇지 제가얼마나 잘낫기에 그런호강한자리를 실타고해요 아이 인제 커는 그애혼인에 일업잡실을 안햇서요 시집을 가든지 못가든지 뭘라온』

숙경의 이쓴다란입은 새주동이커럼 씰쭉하게 내밀엇다。

『하—그러면 쓰나。할업는것이 그래기도이사지 그럴수록잘 타일러서 돌보아주워야지 당신이못본체하면 그애쌍이 무슨꼴이되겟소』

『아이그 그래케영감커럼 그애가 내진청을알어준다면 얼마나 감지덕지하겟서요 커도 어린게남이하나뿐이요 참애해줄 친할커럼 귀여워하고 시집에나잘보내서 흙거외지하고 살려고하는데 어써면 어써면 그애는 그러는지 참말모르겟서요』

『그게 교동으로커서 무슨지각이 이서야지』

『영감 그애를어서하로밧비시집보내라는것도 다른게 아니에요 암만해도 근래수상해요 밤늦게 드러오고 어떤남학생하고 다니고 무슨편지질을하고 그대로두엇다가는 버려겟서요 그래야 무슨철이잇서요 남학생놈들 그압부랑자가 되여넘기는데 전들은 아념어가겟서요 그래서커는 속이타고 애가조려서 더업는시집보내라고 그러답니다。마츰가락으로 조흔자리가 나서고』

『아—니그럼 그것 큰일낫군 용 홍그것참!』

하고 국현은 입맛을쩍쩍다시엿다。

『그러나 영감이 어써케든지 하세요 난 모르겟서요』

『허— 그러면되나 커편에도 당신이 다드려야되지。그아버지 리자작하고는 내가 다말하겟지만 그박게야 다당신이 서둘러야 되지안소』

『그야 인제대사이데 오즉일이만하요 그러고 커편에서아흔 커가 사방에서 불밀듯하는때여 간해서 될줄압니깐』

『그러킨해。참조흔자리여든』

『다원이겟서요 뭐에희에게는 가기만하면팔자가느그러지지요。그런걸 글세 그철부지는한사코 실탑니다。아 조갑갑해서 죽겟서요』

하고 초생달가든 눈섭이 상퓨하나 올라갓다。

『그럼 그애는 내가 마터서조히말을할테니 커편에나 단단히 다커두 설마 아비말이야 거역못하겟지 괘스씸한년가트니!』

하고 국현도 화가난듯이 주름잡힌얼이 골독인 목어처럼부푸러 올랏다。

ClibPDF - www.fastio.com